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백 혜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음 총 명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백 혜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음 충 명

인 준 서

음총명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순 진 이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강 경 선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백 혜 선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수원 소재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9명이며, 2016년 8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학교의 교실에서 주 2회, 매 회기 50분씩, 총 11회기로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진행되었다.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척도와 사회문화 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점수를 측정하였고,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통해 사전·사후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점수(p <.01)와 문화적응 점수(p <.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전에 비해 사후점수의 평균이 증가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 회기 실시한 비디오 촬영과 오디오 녹음 및 대상자별 사전·사후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인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은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에서 ‘그룹음악치료를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가사를 통한 내적표현’, ‘음악치료를 통한 인식의 전환’, ‘그룹경험을 통한 개인적 성장’, ‘음악치료를 통한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의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문제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중도입국청소년 ····· 6

1)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 6

2)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 및 문제점 ····· 7

2.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 9

1) 사회적 지지 ····· 9

2) 문화적응 ····· 11

3. 음악치료 ····· 13

1) 기타와 음악치료 ····· 13

2)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 ····· 14

Ⅲ. 연구방법 ····· 17

1. 연구대상 ····· 17

1) 연구대상 ····· 17

2) 대상자 특성 ····· 17

2. 측정도구 ····· 18

1) 사회적 지지 척도 ····· 18

2) 사회문화 적응 척도 ····· 19

3) 내용 분석 ····· 19
3. 연구 설계 및 절차 ····· 20
1) 연구 설계 ····· 20
2) 연구절차 ····· 21
4.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 21
1)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한 회기 구성 ····· 21
2)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회기별 구성 ····· 22
5. 자료 분석 ····· 30
1) 양적 분석 ····· 30
2) 질적 분석 ····· 31

Ⅳ. 연구결과 ····· 32
1. 양적 연구 결과 ····· 32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2
2)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 33
3) 문화적응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 37
2. 질적 연구 결과 ····· 40
1) 그룹음악치료를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 41
2) 가사를 통한 내적표현 ····· 43
3) 음악치료를 통한 인식의 전환 ····· 44
4) 그룹경험을 통한 개인적 성장 ····· 46
5) 음악치료를 통한 문화적응 ····· 48
6) 사회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의 향상 ····· 49

Ⅴ. 결론 ····· 52

1. 결론 및 논의 ····· 52
2. 제언 ····· 54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Ⅲ-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7
<표 Ⅲ-2>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 18
<표 Ⅲ-3> 사회문화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 19
<표 Ⅲ-4>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 ····· 21
<표 Ⅲ-5>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한 회기 구성 ····· 22
<표 Ⅲ-6> 매 회기별 음악치료 활동과 치료적 근거 ····· 26
<표 Ⅳ-1> 일반적 특성 빈도 ····· 32
<표 Ⅳ-2> 사회적 지지에 대한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 33
<표 Ⅳ-3>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 35
<표 Ⅳ-4> 문화적응에 대한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 37
<표 Ⅳ-5> 문화적응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 38
<표 Ⅳ-6>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경험의 분석결과 ····· 40

그 림 목 차

<그림 Ⅳ-1> 사회적 지지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 점수 ····· 34
<그림 Ⅳ-2> 또래지지 ····· 35
<그림 Ⅳ-3> 가족지지 ····· 35
<그림 Ⅳ-4> 교사지지 ····· 36
<그림 Ⅳ-5> 정서적 지지 ····· 36
<그림 Ⅳ-6> 정보적 지지 ····· 36
<그림 Ⅳ-7> 자존감 지지 ····· 36
<그림 Ⅳ-8> 물질적 지지 ····· 36
<그림 Ⅳ-9> 문화적응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 점수 ····· 37
<그림 Ⅳ-10> 사회적 활동제약 ····· 39
<그림 Ⅳ-11> 개인적 차별 ····· 39
<그림 Ⅳ-12> 정서적 문제 ····· 39
<그림 Ⅳ-13> 사회적 소외 ····· 3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한민국에 이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이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약 200만 명(2,001,828)에 이르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 비율은 2005년 1.5%에서 2016년 3.9%로 증가하여 현재 인구의 1000명당 39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된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유형이 세분화되고 있다. 그 중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로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범주에서 새롭게 분류되었다(양계민, 조혜영, 2012). 이들은 다문화가정청소년과 함께 이주민의 자녀라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청소년으로 통용되어왔지만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란 다문화가정청소년과는 출신국과 성장배경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성과 문제들을 가진다(좌동훈, 2014).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본국에서 살다가 유년기 이후 한국에 이주하게 되어 체류신분의 불안정, 한국어 능력 부족,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학교 규칙 및 이중문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양계민, 2016; 양미진, 고홍월, 김영화, 이동훈, 2012).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공교육으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약 46%의 비율로 나타난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류방란, 2011). 또한 부 또는 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정에도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이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에 놓인 중도입국청소년의 사례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양계민, 2016; 양미진 외, 2012). 새로운 사회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성공적인 적응은 청소년기 이후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주라는 사건을 통해 직면한 어려움들과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이유신, 김한성, 2014).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적응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중재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이유신, 김한성, 2014). 사회적 지지는 가족, 또래, 교사 등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은 적응과 관련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두려움과 차별감을 극복할 수 있다(김종국, 2007; 이병철, 송다영, 2011; 장인숙, 2014). 한국으로의 이주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상실한 중도입국청소년에게는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양계민, 조혜영, 2012).

예술치료 분야에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주배경을 가진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곽현진(2012)은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가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경험과 성취감을 제공하였음을 밝혔다. 박선희(2010)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미술치료가 이중문화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김미경(2010)은 단기집단미술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와 사회적 지지 수준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였다.

음악은 그 시대 또는 세대가 지닌 심리적인 현상을 표현한다. 청소년이 그들만이 공유하는 독특한 형식의 노래나 음악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이와 같은 예이다(Merriam, 1964: Radocy & Boyle, 1997/2005에서 재인용). 또래와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음악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악활동을 위해 형성된 그룹은 긍정적인 지지 기반의 작용을 하므로 그룹에서 구성원이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고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정현주, 2011).

음악이 치료환경에서 사용될 때 치료사는 대상과 치료목적에 따라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즉흥 연주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악기 연주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음악활동 중 하나로 대상자에게 주도적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정현주, 2005). 이 때 대상자는 선호하는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음악활동에 대한 동기와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게 되며, 악기연주의 완성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악기 연주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치료는 인지, 운동, 심리·정서, 사회영역의 문제를 목표로 개인이 적응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특정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정현주, 2005; Bruscia, 1998/2003). 홍소정(2015)은 우쿨렐레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존감, 학교적응력의 향상을 도왔으며 성취감, 사회적 지지의 경험을 제공하였음을 밝혔다. 홍순화(2011)는 대안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악기 연주 중심의 그룹음악치료가 학교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유경(2015)은 첼로를 활용한 그룹음악치료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부적응 행동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였다.

치료적 도구로서의 기타는 휴대와 이동이 용이하고, 간단한 기본코드의 습득만으로 연주가 가능하여 음악교육의 경험이 없더라도 악기의 학습과 연주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하나의 악기로 리듬, 선율, 화성을 모두 연주할 수 있어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표현하기에 유용하다(임연희, 2012; Soshensky, 2005). 이러한 장점을 지닌 기타는 여러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악기이며 특히 청소년의 선호가 높게 나타나므로(배미현, 2001; Krout, 2007),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에서 효과적인 중재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를 중재로 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를 한 연구는 김근영(2005)의 기타를 활용하여 발달장애 아동에게 악기지도를 실시한 연구와 임연희(2012)의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기타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연구가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이 포함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를 살펴보면 김지현(2011)의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력과 정서적 지지의 인식 향상을 위한 한국민요 중심의 음악치료, 박미화(2010)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집단 음악치료, 윤선영과 강경선(2016)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래심리치료, 황혜진(2014)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함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래동요 중심의 음악치료 등이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치료적 악기로서 기타를 활용하여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를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은 사회적 지지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2)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은 문화적응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중도입국청소년은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중도입국청소년

1)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부모가 출신국에서 일정 기간 성장하던 도중에 데려온 자녀를 말한다(류방란, 2011). 이 외에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출신국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를 포함한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16).

이 집단은 2000년 이후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와 함께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중도·동반입국 청소년', '동반·중도입국 자녀', '중도입국자녀', '동반자녀'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불린다(좌동훈, 2014). 중도입국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일정 기간 한국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다가 도중에 입국하는 청소년을 포괄하므로 이주청소년으로 통용되기도 한다(류방란, 2011;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용어와 집단의 정확한 범주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모가 한국에 이주하면서 동반 입국한 자녀와 한국에 먼저 들어온 부모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들이 중도입국청소년의 주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명정, 2011).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귀화를 신청한 21세 이하의 부모 동반 입국 청소년 현황을 2010년부터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수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귀화를 신청한 사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양계민,

2016; 전경숙, 2012), 실제 중도입국청소년의 규모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무부(2012)에 따르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은 2540명으로 국내체류중인 중도입국청소년의 57%에 불과하다. 교육부(2017)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을 2012년 4,288명, 2013년 2,922명, 2014년 5,602명, 2015년 6,261명, 2016년 7,418명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중도입국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2)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 및 문제점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이후 한국에 입국하게 되며, 대다수가 어머니의 재혼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된다(류방란 외, 2011; 양계민, 2016). 이러한 이주배경의 특성으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업을 갖는 동시에 학교진학,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양계민, 조혜영, 2011; 조혜영, 2012).

이들은 보통 방문동거(F-1)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F-1비자는 체류만 허용되기 때문에 의료혜택에 제한이 있고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좌동훈, 2014).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과 연령상의 이유로 저임금·단순 노동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진로와 연결성을 갖고 미래를 계획하지 못한다(양계민, 조혜영, 2011).

오경석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의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 없이 낮은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입국하게 되어 정규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지 못한다. 본국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오랜 기간의 교육공백을 가졌기 때문에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도 학습수행,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규학교에 가게 되면 실제 나이 보다 낮은 나이의 학년에 배정이 되어 또래를 사귀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대안학교에 가게 되면 모국출신의 또래들과만 소통을 하게 되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양계민, 2016; 장명선, 송연숙, 2011).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양부와 친모로 구성된 재혼가정이 85%로 가장 많고(양계민, 2016), 대부분이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생활한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복잡한 심경과 심리적 불안을 보이게 된다. 친모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양부, 이복형제와 함께 살게 되면서 갈등을 겪는다(장명선, 송연숙, 2011). 가족과의 관계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와 가족해체는 부적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양계민, 조혜영, 2012).

2.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긍정적 형태의 도움, 원조, 지원으로 개인의 가족, 또래, 교사, 친척, 이웃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언어와 행동의 도움, 조언과 충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감소, 완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박지원, 1985; 이경주, 1997; 이경주, 신효식, 김효심, 1998; Cohen & Hoberman, 1983: 김종국, 2007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지지 유형으로 설명한다. 정서적 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격려와 같은 대화형태의 도움을 뜻한다. 자존감 지지는 자신이 타인에게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며, 정보적 지지는 개인 스스로가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지지는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여 직접적인 필요를 돕는 것이며,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칭찬에서부터 공정한 평가까지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전달을 뜻한다(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1999; 박지원, 1985; 이경주, 1997; 이영자, 1995).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로 보았으며, Dobow와 Ullman(1989), 이경주(1997)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로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정보적 지지는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경주, 신효식, 1997)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은 가족, 또래, 교사이다.

특히 가족은 일차적인 환경으로 적응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지원이다. 가족 내에서 부모의 지지적인 태도, 애정과 관심은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엄명용,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한 시기로 또래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교사의 긍정적, 우호적, 지지적인 태도는 중도입국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김종국, 2007; 심미영, 이둘녀, 박종옥, 2013; 이유신, 김한성, 2014).

이주민 자녀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 사회적응,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윤숙, 윤인진, 2007). 이주민 자녀의 범주에서 사회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는 중도입국청소년에게도 사회적 지지 자원은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적절하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이후 성인기까지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다(유봉애, 옥경희, 2013). 청소년기에 가족, 또래, 친지, 이웃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이 되며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이경주, 신효식, 김효심, 1998).

낯선 환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가족, 또래, 친지와의 사회적 지지가 단절된 상태에 놓인 중도입국청소년은 새로운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김종국, 2007). 대부분의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사회에서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지만, 사회적 지지망을 잘 형성한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여 생활한다. 즉, 중도입국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 적응도가 높게 나타난다(한희선, 2005).

2) 문화적응

모국을 떠나온 이주민들은 태어나고 자란 문화와 더불어 다른 배경의 문화를 갖는다. 국제결혼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것을 '문화접촉'이라고 하며, 새로운 문화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들을 '문화적응'이라고 한다.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접촉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김윤나, 2007; 박선희, 2010).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다른 두 문화의 만남에 의한 문화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이다(Berry, 1987). 문화적인 변화는 새로운 법, 제도,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심리적 변화는 새로운 적응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적 변화, 대처방식, 정체성,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삶의 태도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김영란, 2007; Phinney, 2003: Sam & Berry, 2010에서 재인용).

이주민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때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응 태도를 보인다. 이는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의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Berry, 1987). 동화는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배제하고 새롭게 정착한 주류문화에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분리는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만 유지하고 새롭게 정착한 주류문화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은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정착한 주류문화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며, 주변화는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 및 새롭게 정착한 주류문화를 모두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노충래, 홍진주, 2006에서 재인용). 새로운 문화에 정착하게 되는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와 주류 문화 중에서 어떤 문화를 더 의존하는지에 따라 적응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

이다(Ward, 1996: 좌동훈, 2012에서 재인용). 왜냐하면 언어, 생활습관, 사회적 지지망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사회적으로 느끼는 차별, 제약, 소외의 경험은 변화에 대처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상태와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고,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게 한다(남효진, 2007).

양계민과 조혜영(2012)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새로 정착한 나라의 언어 유창성, 학교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로 설명하고,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라는 사건과 더불어 가족해체와 재결합으로 인해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자원의 인식이 동반되는 것이 문화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음악치료

1) 기타와 음악치료

음악치료에서 기타는 휴대가 편리하고 연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용이하여 치료적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기타는 오른손으로 피크나 핑거주법을 사용하여 선율, 리듬을 표현할 수 있고, 왼손으로는 코드 운지를 통하여 다양한 화성을 표현해 낼 수 있다(김진욱, 2016). 또한 여러 리듬으로 연주방법에 변화를 주어서 곡의 분위기에 따라 음악적 표현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타는 록, 컨트리, 포크, 왈츠,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할 수 있고, 대상자들마다 다른 음악적 선호를 만족시키면서 치료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Soshensky, 2005).

기타가 임상에서 활용될 때의 장점은 첫째, 휴대와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치료사는 내담자와의 물리적인 거리를 조절하면서 상호작용 할 수 있고, 그룹음악치료에서도 모든 내담자들과 마주보는 형태에서 각내담자들을 관찰하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둘째, 단기간의 학습만으로도 연주가 가능하다. 기타는 기본코드만 습득하여도 한 곡을 연주할 수 있어서 내담자가 단기간에 즉각적인 성취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악기로서 다양한 연령대, 장애를 가진 계층에게 접근이 용이하다(김진욱, 2016; 이신원, 2015).

Krout(2007)에 의하면 기타는 여러 연령대가 선호하는 악기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선호가 높은 악기이다. 이에 대해 Arnett(1991)는 기타가 단기간의 학습만으로도 연주가 가능한 실용적인 악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들은 기타에 대한 학습의 욕구를 갖게 되며 실제로 학습을 시도하게 된다(배미현, 2001). 음악치료에서 내담자의 선호를 고

려하여 선택된 악기가 내담자의 참여에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정현주, 2005), 기타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에 효과적인 악기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타를 활용한 해외의 음악치료 연구에서 Hanser(1999)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청소년이 기타를 활용한 세션에서 주어진 과제를 끈기 있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Krout, 2007에서 재인용). Steele(1977)은 지적장애 청소년이 기타가 사용된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적절한 행동패턴과 학습패턴, 대화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하였고, Knoll(1998)과 Wigram(2000)은 발달장애 청소년이 기타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음악치료 세션 동안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였음을 밝혔다. Madsen과 Madsen(1968)은 기타가 청소년들의 감정조절에 도움을 주며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하였다.

기타를 활용한 국내의 음악치료 연구에서 김근영(2005)은 발달장애 아동이 기타를 연주를 통해 신체적·인지적 결함을 극복하고 음악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며, 임연희(2012)는 기타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신원(2015)은 방임아동이 치료사의 기타임상즉흥연주를 통해 음악적 상호작용과 자유로운 음악표현 외 다양한 경험을 하였음을 밝혔다.

2)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

음악은 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가 반영된 음악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감을 갖게 해준다. 비언어적 매개체로서 언어, 연령, 문화, 장애유무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음악교육의 경험 없이도 음악을 느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한국어가 사용된 음악은 비위협적으로 문화 수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김지현,

2011).

이중 언어로서의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 사회에서 소외감, 차별, 위축, 부적응의 문제들을 경험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은 음악치료에서 자신이 가진 어려움과 감정을 확인하고 노래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박민정, 2014). 특히 노래에서의 가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서 대상자들이 가지는 내면의 문제와 어려움을 깊이 탐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노래의 심리치료적인 기능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사회와 문화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어려움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타인들도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박민정, 2014; 정현주, 김동민, 2010).

그룹에서의 악기 연주는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차별과 또래관계에서 고립을 느끼는 중도입국청소년은 그룹에서의 합주를 통해 성취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룹 내에서 공감, 수용, 지지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최병철, 2006). 합주는 타인과 함께 음악활동을 하는 동안 차례 기다리기, 타인 인식 및 경청하기 등의 사회교류 기술이 요구되므로, 사회성 영역에서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정현주, 2005; 홍소정, 2015).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문화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겪는 문제와 필요를 위해 실시된 음악치료는 문화적응, 사회성, 심리·정서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민요 중심의 그룹 음악치료는 음악의 문화적 요소를 통해 정서자극, 문화경험 및 수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지현, 2011). 베트남 노래와 한국 노래가 사용된 악기 연주 활동 중심의 집단음악치료에서 노래는 모국에 대한 향수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

으며(박미화, 2010), 동요를 사용한 치료적 노래 부르기 활동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향상을 촉진시키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켰다(최애나, 2012).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한국 민요를 사용한 치료적 노래 부르기 활동이 이주여성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주고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도왔다(Kim, 2013). 또한 타악기 연주 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중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었다(곽현진, 2012).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수원 소재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 9명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출생이면서 모국어가 중국어인 중도입국청소년
2) 중국에서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
3) 음악치료 참여에 동의한 중도입국청소년

2) 대상자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성별	나이	중국에서 혼자 생활한 기간	입국 시기	현재 국적
A	남	17	17년	2016. 07.	중국
B	남	19	15년	2014. 10.	중국
C	남	19	11년	2014. 11.	중국
D	남	17	10년	2016. 07.	중국
E	여	19	10년	2015. 03.	중국
F	여	18	11년	2016. 01.	중국

G	남	18	15년	2013. 07.	중국
H	여	17	08년	2016. 06.	중국
I	여	19	11년	2012. 10.	중국

2. 측정도구

1)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 박지원(1985), 김명숙(1994)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평가 척도를 이경주(1997)가 청소년의 부적응에 관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지원 차원에서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3개 요인 15문항과, 지지유형 차원에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의 4개 요인 17문항, 총 32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지지원 .81, 지지유형 .94 이다(이경주, 1997).

<표 Ⅲ-2>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지지원	또래지지	5	1, 2, 3, 4, 5	.84
	가족지지	5	6, 7, 8, 9, 10	.88
	교사지지	5	11, 12*, 13, 14, 15	.83
지지유형	정서적 지지	6	16, 17, 18, 19, 20, 21	.91
	정보적 지지	3	22, 23, 24	.79
	자존감 지지	5	25, 26, 27, 28, 29	.87
	물질적 지지	3	30, 31, 32	.78

* 역채점 문항

2) 사회문화 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장혜경과 김영란(2000)의 사회적응 척도를 바탕으로 윤인진과 채정민(2010)의 사회문화적응 척도를 참고하여 좌동훈(2012)이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활동제약 4문항, 개인적 차별 3문항, 정서적 문제 2문항, 사회적 소외 3문항, 총 12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모든 문항이 부정문인 관계로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다(좌동훈, 2012).

<표 Ⅲ-3> 사회문화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사회적 활동제약	4	1, 2, 3, 4	.78
개인적 차별	3	5, 6, 7	.80
정서적 문제	2	8, 9	.81
사회적 소외	3	10, 11, 12	.76

3) 내용 분석

(1) 질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을 위하여 질적인 자료분석을 하였다. 질적 분석은 연구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 그대로를 근거로

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자의 편견 없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연구에서의 처치나 중재보다는 연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건, 경험, 상호작용 등에 관심을 두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질적 분석을 실시하는 연구자는 실제 임상을 통해 수집된 세션 일지, 연구자의 메모, 사진, 비디오 녹화 테이프, 오디오 녹음 파일, 인터뷰 필사 기록 등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기술한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Wheeler, 1995/2004). 질적 분석은 자료수집, 기술, 해석의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진행되기 보다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서로 넘나들 수 있으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질적 분석의 절차는 읽기와 메모하기, 기술하기, 분류하기, 해석하기로 이루어진다(김영천, 2016; 이종승, 2012).

(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매 회기 실시한 비디오 촬영과 오디오 녹음, 음악치료 사전과 사후에 실시한 대상자들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시작 전, 음악치료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종료 후 삭제될 것을 밝히고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

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이루어졌다. 음악치료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 수준과 문화적응 정도를 측정하였고, 음악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사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 수준과 문화적응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 Ⅲ-4>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

집단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X	O

(O는 사전·사후 검사, X는 음악치료)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 소재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학교의 교실에서 주 2회, 매 회기 50분씩, 총 11회기로 진행되었다.

4.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1)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한 회기 구성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한 회기는 50분이며 도입, 본 활동, 마무리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도입은 활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노래를 가수의 원음과 뮤직비디오 및 치료사의 노래와 연주로 소개하였다. 본 활동은 기타를 활용하여 각 회기의 목표에 부합하는 한국어 노래 부르기, 기타 연주와 합주, 가

사 만들기 등을 하였다. 마무리는 회기별 활동에 대한 각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고, 각자가 선택한 선호하는 곡을 한 번 이상씩 연주한 후 종결하였다.

<표 Ⅲ-5>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한 회기 구성

단계	시간	활동내용
도입	5분	활동소개
본 활동	40분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마무리	5분	생각과 느낌 나누기, 선호하는 곡 연주

2)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회기별 구성

본 연구의 음악치료 활동은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사회문화 적응의 하위요인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활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노래와 음악치료 활동은 사전인터뷰에서 얻어진 대상자들의 한국어 실력,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음악적 선호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동거 가족에 대한 정보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활동은 1-2회기를 도입단계, 3-8회기를 전개단계, 9-11회기를 종결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도입단계인 1회기와 2회기에서는 치료사와 대상자, 대상자와 기타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기타를 탐색하고 기본코드 및 연주법을 학습하였다. 치료사는 대상자들의 참여 수준과 반응, 선호도를 관찰하여 이후 활동을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전개단계인 3회기부터 8회기에는 음악치료를 통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대상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외적 자원의 인식을 목표로 기타를 사용하여 다양한 음악치료 활동(대상자 자신이 직접 연주하며 한국어로 노

래, 기타 연주와 합주, 가사 만들기 등)을 하였다. 악기연주 활동은 치료 목표와 대상자들의 연주 수준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곡 전체를 연주하기보다는 특정한 마디 또는 반복되는 후렴부분을 연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세션이 진행됨에 따라 대상자가 연주에 참여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증가되게 하였다.

종결 단계(9-11회기)인 9회기와 10회기에서는 문화적응 경험과 사회적 지지 자원의 인식을 목표로 각 대상자들은 그룹에서 맡은 특정한 마디 또는 가사부분을 연주하며 노래하였다. 11회기에는 문화적응 경험과 사회적 지지를 자원화 하는 기회로써 학교 교사들과 한국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매 회기별 음악치료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1회기는 대상자들과 치료사간의 친밀감 형성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기타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타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소개하고, 자유롭게 기타를 탐색하게 하였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기타 소리를 듣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기타의 6음을 학습하였다. 반복되는 가사와 2개의 코드만으로 연주가 가능한 <열 꼬마 인디언>을 소개하고, 기본 주법을 사용하여 곡을 연주하였다.

2회기에서 치료사는 대상자들이 1회기 활동곡 <열 꼬마 인디언>을 다른 조성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전조한 조성의 기본코드 2개를 소개하였다. 대상자들은 2개의 기본코드 연주만으로 한 곡을 완성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익숙한 노래를 통해 총 4개의 코드를 학습하였다. 이어서 각자가 선호하고 기타로 연주하고 싶은 한국어 노래를 그룹에서 소개하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3, 4, 5회기는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랩과 힙합 장르의 곡을 사용하였다. 반복되는 가사와 3개의 코드만으로 연주가 가능한 ‘god’의 <어머님께>와 ‘WINNER’의 <공허해>를 선곡하고, 반복되는 후렴구에서 대상자들의 가사를 반영하여 노래하였다. 3회기에서는 ‘god’의 <어머님께> 후렴구를 기타연주와

노래하고, 엄마 또는 아빠에 대한 대상자 자신들의 마음을 한국어 가사로 만들고 그룹에서 나누었다. 치료사는 대상자들이 만든 가사를 반영하여 <어머님께> 1절을 완성하고, 각 대상자들이 자신이 만든 가사 부분을 기타 연주와 함께 노래하도록 하였다. 4회기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가사가 반복되는 구조를 사용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가사는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주제로, 대상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어려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상자들은 감정카드를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간단한 단어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감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을 가사지에 적고 기타연주와 함께 노래하였다. 5회기에서는 4회기의 주제에서 확장하여 실제 자신이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가사를 제공하였다. '나는 OO할 때 힘들어, 나는 OO할 때 슬퍼, OO할 때 기분이 좋아, OO할 때 행복해' 등으로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상황을 모두 제시하였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12가지 상황 중에서 꼭 이야기 하고 싶은 2가지의 상황을 선택하게 하였다. <공허해> 후렴구의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대상자들은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 가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6, 7회기는 5회기까지 경험한 기본코드로 후렴구의 연주가 가능하고, 회기의 치료목표와 관련된 주제가 가사로 제시되어있는 '음총명'의 <당신도 제주에 가나요>를 사용하였다. 후렴구의 기본코드 3개로 기타 연주하면서 다음의 활동을 하였다. 6회기에서는 2절 도입부분의 가사를 주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 사람들과 대상자들 간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7회기에서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나타내는 후렴구의 가사를 주제로 외적자원(가족, 친구, 학교 교사 등)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사에서 제시된 단어를 노래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 '응원' 등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대상자들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가사 채우기를 하였다. 평소에 경험해보지 않은 가사 만들기 활동을 통해 대상자 자신이 가진 지지 자원을 인식하고 노래로써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8, 9회기는 코드의 진행이 기타 연주에 용이하면서 단순한 멜로디가 반복되는 '이한철'의 <슈퍼스타>, <할 수 있다는 말>을 사용하였다. 8회기에서는 <슈퍼스타> 후렴구의 'OO하면서 산다면 그 것이 슈퍼스타'라는 가사를 사용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룹에서 표현하도록 하였다. 연주 활동에서는 대상자들의 음악적 수준을 고려하여 후렴부분 전체를 연주하기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맡은 부분에서 연주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는 대상자들이 다양한 음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타악기를 제공하고, 선택한 코드 부분에서 연주하며 노래하거나 자유로운 부분에서 연주하며 노래하도록 하였다. 9회기의 활동으로 이어가기 위해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그룹에서 토의하고 마무리하였다.

9회기에서는 '스탠딩에그'의 <사랑한다는 말>을 대상자들의 한국어 수준과 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사로 개사하여 <할 수 있다는 말>로 사용하였다. 8회기에서 나눈 자신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키고 그룹에서 이야기 하였다. <할 수 있다는 말>의 가사는 대상자 자신이 자신의 꿈을 반영한 가사로 후렴구의 네 마디를 부르면, 그룹이 지지하는 가사로 네 마디를 부르는 구성이다. 노래를 통해 소개한 대상자들의 꿈을 그룹에서 지지 받도록 하였다.

10회기에서는 활동에서 사용된 모든 곡을 기타연주와 함께 노래하였다. 대상자들의 한국어 수준과 연주 수준으로도 한 곡을 완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역할을 주었다. 각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곡의 특정 부분에서 기타 연주와 함께 독창할 때 그룹이 한 곡을 완성하는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11회기에서는 대상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들과 한국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자들이 그동안 익히고 연습한 한국 노래들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받게 되는 직접적인 칭찬들을 통하여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마지막 활동에 대한 느낀 점을 나누며 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매 회기의 활동들은 음악을 배운 경험이 없고 기타가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곡에서의 특정 부분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개의 코드만으로도 연주가 가능한 곡에서, 1개의 코드를 치료사가 선택하면 그룹이 나머지 1개의 코드를 선택하여 자신이 선택한 코드가 나올 때만 연주하여도 한 곡이 완성되도록 하였다. 회기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부분을 선택하게 하거나, 특정 부분에서 독주나 독창을 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활동의 구조화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대상자가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성공을 경험하도록 돕는다(정현주, 2005).

위에서 설명한 매 회기별 음악치료 활동과 치료적 근거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매 회기별 음악치료 활동과 치료적 근거

단계	회기	치료목표	활동 내용	치료적 근거
도입	1	라포형성 및 자기소개	·치료사와 대상자들간 소개 ·악기(기타) 탐색 및 소개 ·<열 꼬마 인디언>의 Ⅰ도와 Ⅴ도 기본코드 2개(D, A) 연주 ·기본주법(다운스트로크) 소개 및 연주	·대상자들은 치료사 및 다른 대상자들과 자기소개를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익숙하지 않은 활동에서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참여를 이어나가게 된다. ·기본 코드와 기본 박을 사용한 연주의 반복은 대상자들이 부담감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2	자기소개 (선호하는 한국어 노래를 통한 자기소개)	・전조된 <열 꼬마 인디언>의 Ⅰ도와 Ⅴ도 기본코드 2개(A, E) 연주 ・대상자들 자신이 선호하고 기타로 연주하고 싶은 한국노래 소개, 감상 후 느낌 나누기	・전조된 <열 꼬마 인디언>의 Ⅰ도와 Ⅴ도 코드를 제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은 익숙한 곡에서 새로운 1개의 코드를 더 배우게 되며, 다른 곡의 연주를 준비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선호를 그룹에서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소개한 곡을 그룹과 함께 감상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경험을 한다(Tervo, 2001).
전개	3	자기표현 (한국어 노래 가사를 통한 자기표현)	・'god'의 <어머님께> 후렴 부분을 연주와 노래 ・기본 3화음 외 부가화음 코드 2개(Aadd9, B7) 연주 ・엄마(또는 아빠)에 대한 대상자 자신의 마음을 한국어 가사로 만들고 그룹에서 나누기 ・각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머님께>의 가사를 완성	・기본 3화음 외의 코드를 소개하여 대상자들이 새로운 과제에도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음악치료에서 기타 연주 기술을 익히는 것은 음악적인 성장 보다는 한 곡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갖는다(최유선, 2002). ・간단한 한국어 가사 만들기 활동은 대상자들이 일상에서 느꼈던 한국어 사용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음악을 통해 맥락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고 노래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문화적응 스트레스 표현	・그룹의 가사로 완성한 <어머님께>를 기타 연주와 함께 부르기 ・'WINNER'의 <공허해> 기본코드(C, Em, F, Fm)를 기타 연주와 노래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감정	・한국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대상자들이 발음에 대한 어려움 없이 노래를 통해 자연스러운 발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중도입국청소년에게는 문화적응이 될 수 있다(최애나, 2012).

		을 한국어 가사로 표현하기	· 노래의 가사는 활동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한다. 가사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기억을 되살리고, 노래로 표현하는 기회를 갖는다.
5	문화적응 스트레스 표현 및 상호교류 증진	· 'WINNER'의 <공허해>를 새로운 주법(저음부 고음부 구별하여 치기)으로 연주 · 실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감정 표현하기 · 그룹원들과 의견을 교류	· 연주 수준과 난이도를 구조화하는 것은 대상자가 세션에 흥미를 잃지 않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며, 그룹에서 가사의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대상자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박민정, 2014).
6	자기탐색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탐색)	· '음총명'의 <당신도 제주에 가나요> 기본코드(D, A, G) 연주와 함께 노래 · 한국 사람들과 대상자들 간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대상자들은 노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것들과 대상자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내재된 복잡한 감정과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정현주, 김동민, 2010).
7	외적자원 탐색	· '음총명'의 <당신도 제주에 가나요> 후렴구에서 자신을 격려하는 자원(가족, 친구, 학교 교사)을 반영하여 가사를 완성하고 노래 부르기	·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치료사의 격려와 그룹원의 지지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큰 보상이 된다(정현주, 김동민, 2010). · 다양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 나타나있는 주제의 가사는 대상자들이 자신이 가진 외적 자원을 탐색하

				는 데 좋은 보기가 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직접 가사를 완성하면서 자신의 외적 자원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
	8	내적자원 탐색	·'이한철'의 <슈퍼스타> 후렴구를 기본코드(D, A, G)로 연주와 노래 ·삶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사로 만들고, 후렴 부분에서 기타 또는 타악기 연주와 함께 노래 부르기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 그룹에서 발표하기	·악기 연주활동은 소속감을 경험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룹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대상자들은 다른 대상자들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다(우현정, 2010). ·긍정적인 가사를 사용하는 것은 대상자들 스스로가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할 수 있게 한다(박민정, 2014). 또한 노래의 주제와 관련된 그룹에서의 토의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결	9	사회적 지지 경험	·개사된 <할 수 있다는 말>의 후렴구를 기본코드(D, A, G)와 새로운 주법(칼립소 스트로크)으로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그룹원 한 명이 자신의 꿈을 반영한 가사로 노래하고, 그룹은 지지하는 가사의 부분을 함께 부르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기	·새로운 주법을 제시하는 것은 대상자가 음악적 변화에 대한 즐거움과 동기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대상자가 자신의 꿈을 그룹에서 표현하고 후렴의 가사로 격려 받는 구조를 통해 타인에게 지지받는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홍순화, 2011).
	10	사회적 지지 경험 및 문화적응	·한 곡에서 대상자들 각자가 맡은 특정 부분을 연주와 노래하여, 그룹에서 완성하기 ·2회기에서 대상자들 자신	·대상자들은 그룹에서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한 곡을 완성하는 경험을 하면서 서로의 연주를 수용하고 지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상자들은 자신이 가진 사

			이 선택한 한국어 노래를 그룹에서 연주와 함께 노래하기	회적 지지 자원을 인식하게 되며 함께하는 그룹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 그룹에서의 발표는 음악치료 활동을 통한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결 및 발표	11	사회적 지지의 자원화 및 문화적응	· 학교 교사들 앞에서 발표 · 음악치료 활동에 대한 느낀점 나누기	· 발표는 대상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대상자들은 자신이 만든 가사로 완성한 한국어 노래들을 발표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한국어 노래를 부른 그 자체는 문화 경험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황혜진, 2014).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양적 분석

본 연구의 양적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차이를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본 뒤 이를 도표로 나타내었다.

셋째, 각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았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n=9)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05 이다.

2) 질적 분석

본 연구의 질적 분석은 매 회기 실시한 비디오 촬영 및 오디오 녹음과 연구 대상자들의 사전·사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 수집을 통해 얻은 내용 전체를 필사하고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 대상자들의 음악치료 경험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구별해 내었다.

둘째, 필사를 바탕으로 발췌한 진술들은 문장 그대로 의미단위로 규정하였다.

셋째, 규정된 의미단위를 유사한 개념들끼리 묶어 하위 범주를 구성하고, 범주로 나뉜 개념들을 연구자의 언어로 개념화 하였다.

넷째, 하위 범주를 다시 각각의 개념을 포괄하는 더 큰 주제군으로 범주화 하였다.

다섯째, 각 범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기술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양적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력,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가족형태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IV-1> 일반적 특성 빈도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5	55.6
	여	4	44.4
나이	17	3	33.3
	18	2	22.2
	19	4	44.4
학력	초졸	3	33.3
	중졸	5	55.5
	고졸	1	11.1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기간	8	1	11.1
	10	2	22.2
	11	3	33.3
	15	2	22.2
	17	1	11.1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6개월 미만	2	22.2
	6개월-1년 미만	2	22.2
	1년-2년 미만	2	22.2
	2년-3년 미만	1	11.1
	3년-4년 미만	2	22.2
가족형태	친부모 가족	5	55.5
	재혼 가족	4	44.4
계		9	100.0

2)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1) 사회적 지지 전체점수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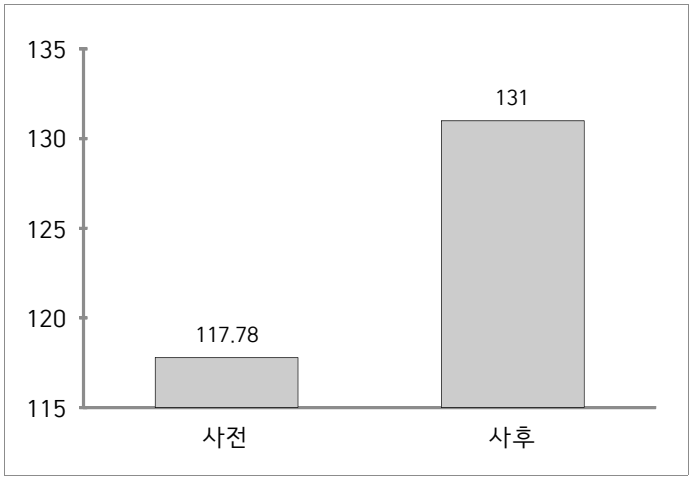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시작 전 평가한 사전점수의 평균과 이후 평가한 사후점수 평균을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사회적 지지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01) 사전에 비해 사후점수의 평균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험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음악치료 활동 이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Ⅳ-2>, <그림 Ⅳ-1>과 같다.

<표 Ⅳ-2> 사회적 지지에 대한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집단	평균(표준편차)		Z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회적 지지	117.78(21.95)	131.00(20.78)	-2.67**

** p <.01



<그림 Ⅳ-1> 사회적 지지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2)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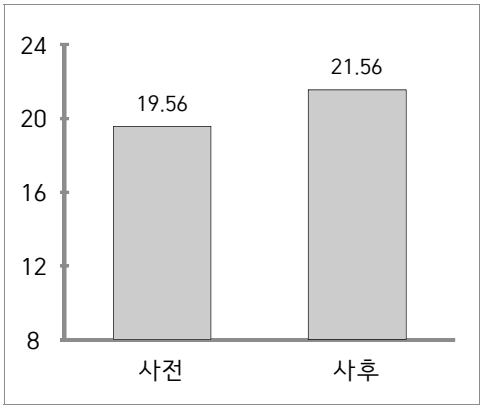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점수의 평균과 사후점수 평균을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05) 평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물질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5).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또래지지, 교사지지, 물질적 지지 요인도 사전에 비해 사후 평균점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가족지지는 오히려 평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Ⅳ-3>, <그림 Ⅳ-2>, <그림 Ⅳ-3>, <그림 Ⅳ-4>, <그림 Ⅳ-5>, <그림 Ⅳ-6>, <그림 Ⅳ-7>, <그림 Ⅳ-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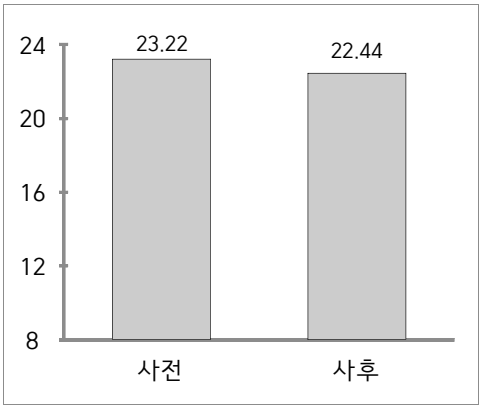
<표 Ⅳ-3>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측정치	평균(표준편차)		Z
	사전검사	사후검사	
또래지지	19.56(5.20)	21.56(2.79)	-1.21
가족지지	23.22(2.59)	22.44(3.50)	-.40
교사지지	18.56(4.07)	21.11(2.52)	-1.87
정서적 지지	19.78(6.83)	23.33(5.41)	-2.21*
정보적 지지	8.22(2.77)	10.89(2.98)	-2.11*
자존감 지지	16.67(4.69)	19.11(4.73)	-2.32*
물질적 지지	11.78(2.33)	12.56(2.70)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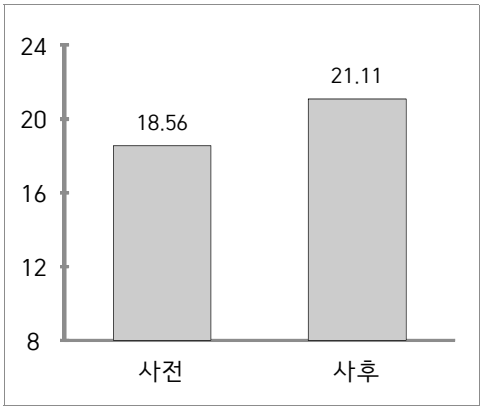
*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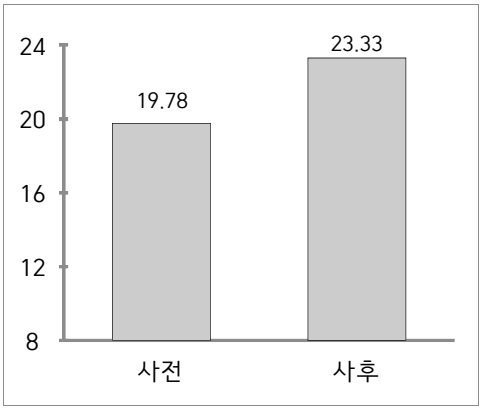
<그림 Ⅳ-2> 또래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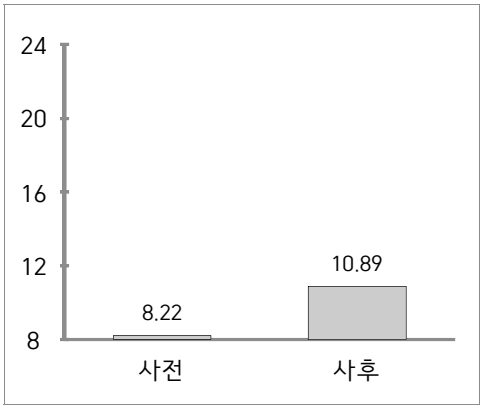
<그림 Ⅳ-3> 가족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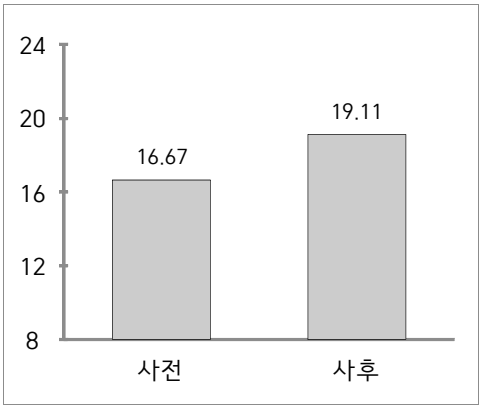
<그림 Ⅳ-4> 교사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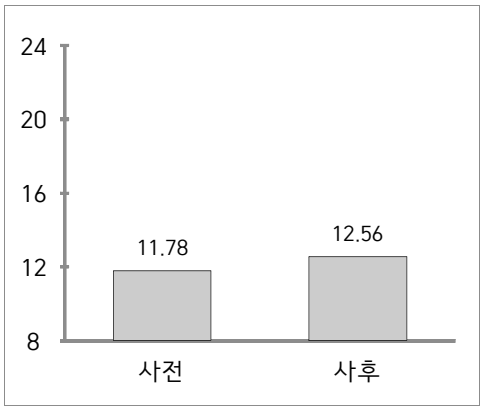
<그림 Ⅳ-5> 정서적 지지



<그림 Ⅳ-6> 정보적 지지



<그림 Ⅳ-7> 자존감 지지



<그림 Ⅳ-8> 물질적 지지

3) 문화적응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1) 문화적응 전체점수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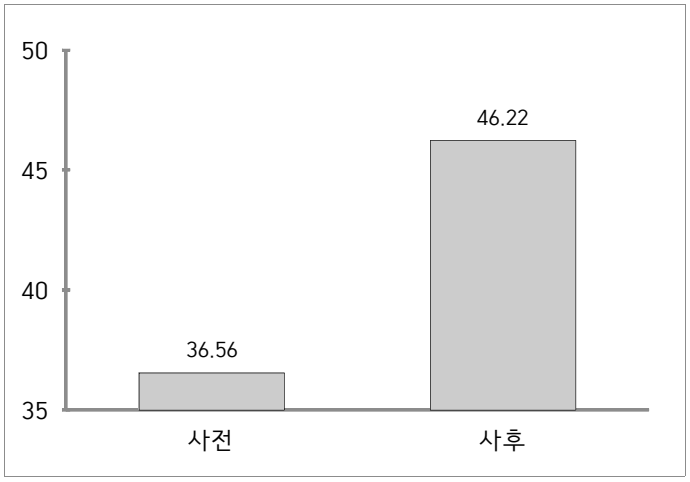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 평가한 사전점수의 평균과 이후 평가한 사후점수 평균을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문화적응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05) 사전에 비해 사후점수의 평균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험 대상자의 문화적응이 음악치료 활동 이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Ⅳ-4>, <그림 Ⅳ-9>과 같다.

<표 Ⅳ-4> 문화적응에 대한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집단	평균(표준편차)		Z
	사전검사	사후검사	
문화적응	36.56(7.32)	46.22(7.74)	-2.55*

*p <.05



<그림 Ⅳ-9> 문화적응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2) 문화적응 하위요인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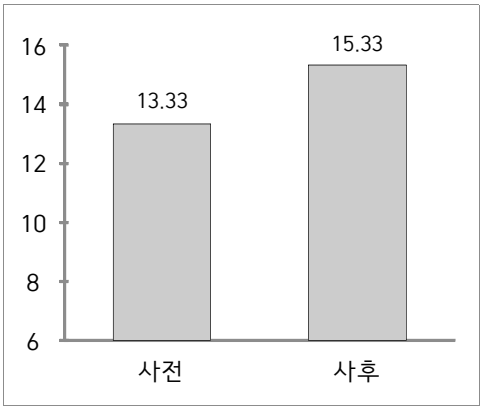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문화적응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점수의 평균과 사후점수 평균을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문화적응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활동제약과 사회적 소외는 유의미한 차이(p <.05)를 보이며 사후 평균점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개인적 차별과 정서적 문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5).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하위요인도 평균점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Ⅳ-5>, <그림 Ⅳ-10>, <그림 Ⅳ-11>, <그림 Ⅳ-12>, <그림 Ⅳ-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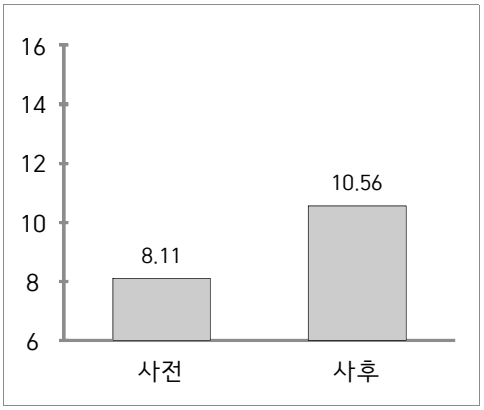
<표 Ⅳ-5> 문화적응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측정치	평균(표준편차)		Z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회적 활동제약	13.33(3.57)	15.33(3.71)	-2.25*
개인적 차별	8.11(2.03)	10.56(3.54)	-1.80
정서적 문제	7.44(1.74)	8.22(2.68)	-.64
사회적 소외	7.67(3.67)	12.11(2.62)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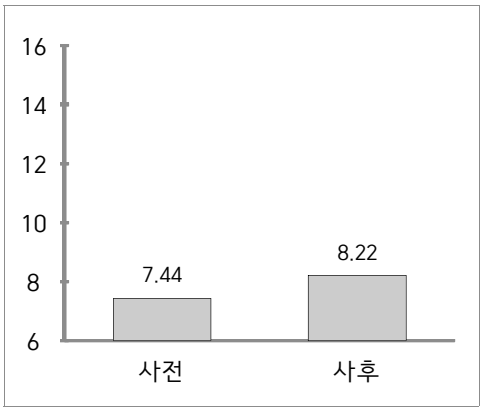
*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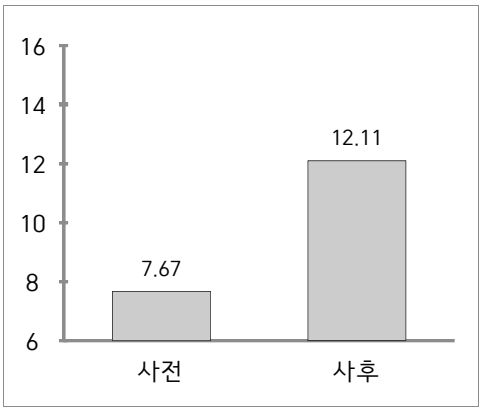
<그림 Ⅳ-10> 사회적 활동제약



<그림 Ⅳ-11> 개인적 차별



<그림 Ⅳ-12> 정서적 문제



<그림 Ⅳ-13> 사회적 소외

2. 질적 연구 결과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46개의 의미단위가 추출되었고 총 6개의 범주 및 13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6>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경험의 분석결과

통합된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그룹음악치료를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다른 내담자들과의 소속감, 유대감을 느낌 -음악치료에서의 성공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회복
가사를 통한 내적 표현	-가사의 내용에 대한 동일시 경험 -가사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야기를 표현함
음악치료를 통한 인식의 전환	-고립된 여가생활에서 음악을 접하는 시간이 증가함 -음악치료가 내적동기부여의 기회가 됨
그룹경험을 통한 개인적 성장	-음악치료 활동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다른 대상자들과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됨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됨

음악치료를 통한 문화적응	-일상에서 경험한 활동제약이 음악치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느낌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
사회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의 향상	-가족의 지지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됨 -교사의 지지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됨 -또래의 지지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됨

1) 그룹음악치료를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함께 노래 한 곡을 완성하는 경험,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노래하고 발표하면서 다 같이 칭찬받는 경험을 통해 서로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악기로 한 곡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끝까지 연주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다른 내담자들과의 소속감, 유대감을 느낌

>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할 때 저는 세 번째 순서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노래 한 곡이 완성되니까 좋았어요. (대상자 A)

> 기타를 치는 거가 좋아요. 잘하지 못해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았어요. (대상자 D)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노래했던 게 제일 기억나요. (대상자 E)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 곡을 노래했을 때, 반이 단합되는 느낌이라서 한 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좋았어요. (대상자 F)

친구들과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재밌었고, 몇 달 동안 연습해서 다 같이 칭찬 받으니까 더 좋았어요. (대상자 G)

-음악치료에서의 성공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회복

기타 옛날에 중학교 때 조금 배웠었는데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다 어렵지만 기타는 계속 배우고 싶고... 이제는 제가 열심히 하면 돼요. (대상자 E)

저는 악기를 배울 때마다 계속 포기해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애들보다 더 어려운 걸 계속 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하려고요. (대상자 G)

잘 안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안될 것 같으니까. 피아노 칠 때도 손과 발이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치하지 않으니까 짜증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력하면 잘되니까 괜찮아요. 기타를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대상자 I)

2) 가사를 통한 내적표현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활동에서 사용된 노래 가사의 내용이 자신의 상황과 비슷할 때 감정이 동일시되는 경험을 하였다. 대상자들은 직접 가사를 만드는 활동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가사를 통해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 가사의 내용에 대한 동일시 경험

> 좋았던 노래는 많은데 노래 이름은... 어머니에게. 저도 엄마를 생각하면 고맙고 많이 미안하거든요. (대상자 E)

> 저는 슈퍼스타 노래가 좋았어요. 음이 그냥 잘 들어가고 그 가사.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의 주인공 얘기가 내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거랑 비슷했어요. (대상자 H)

- 가사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야기를 표현함

> 저 꿈이 축구선수라고 했는데. 내 얘기를 그렇게 가사에 넣어서 노래 불렀던 것이 마음에 들어요. (대상자 D)

> 우리들의 내용으로 가사 바꾸는 것을 선생님이 시켰는데, 나만의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내용이랑 뜻이 정말 좋았어요. 원래 노래는 그 사람들이 써 놓은 그 사람들만의 얘기였는데, 우리들이 직접 가사를 만드니까 그 걸 부를 때 마음이 훨씬 나의 것 우리

의 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대상자 F)

3) 음악치료를 통한 인식의 전환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음악치료 경험을 통해 음악과 악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로 여가시간동안 음악을 감상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은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음악활동 중 노래 부르기, 기타연주에 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 고립된 여가생활에서 음악을 접하는 시간이 증가함

> 한국에 왔을 때 맨날 D랑 둘이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만 했는데... 요즘은 음악도 들어요. 한국노래나 영어도 듣고. 좋은 음악이 너무 많아요. (대상자 A)

> 집에서 게임하고 TV만 봤었는데 이제 기타라도 연습할 게 생겼어요. (대상자 G)

> 쉴 때는 핸드폰 그리고 그냥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놀고 동생이 다섯 살인데 집에 사람 없으면 내가 봐줘요. 옛날부터 기타 해보고 싶었는데 동생 보느라 시간이 없어서 안 해봤거든요 학교도 안 갔고. 요즘은 집에서 기타 치면서 불러 보고 싶은 노래들을 많이 들어요. (대상자 H)

- 음악치료가 내적동기부여의 기회가 됨

그 때 선생님이랑 같이 들었던 노래가 좋았는데. 그거 기타로 배워서 해볼래요. (대상자 B)

기타를 사서 집에 혼자 있을 때 치려고요. 아이유 노래를 기타로 열심히 연습해서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 보여주고 싶어요. (대상자 F)

저는 가수가 되고 싶지만 가수는 너무 먼 것 같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도 기회를 찾아가려면 밖에서 그.. 노래 부르고 기타 잘 치고 하다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 사먹고 여행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돈 벌어서 제일 먼저 노래 배우고 싶어요. (대상자 G)

꿈이나 잘하는 건 아직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건 있어요. 기타 좋아요. Sunflower랑 정은지 하늘바라기도 나중에 꼭 배워서 기타 치며 불러보고 싶어요. (대상자 H)

중국말이 지금까지는 쓸 데 없었어요. 중국말 한다고 대단한 것도 없고 그냥 거기 살았으니까 되는 건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음악시간에는 친구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에서 심리치료사가 되어서 친구들을 더 도와주고 싶어요. (대상자 I)

4) 그룹경험을 통한 개인적 성장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한국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개인이 겪은 어려움에 관하여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하는 활동 중에 개인이 경험한 차별과 어려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은 그룹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면서 그동안 느낀 차별감이 개인의 성격, 태도에 관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 음악치료 활동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다른 대상자들과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됨

> 저도 밖에서 말 안 해요. 밖에서 중국말 하면 눈빛이 차별이거든요. 다른 말로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냥 눈빛이. 보고 속닥거리고 또 쳐다봐요. (대상자 B)

> 제가 힘든 건 그냥 말. 마음이나 그런 걸 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하는 게 좀 힘들고 발음이 좀 어려워요. 마음을 말하기가 힘든 것도 있고. (대상자 C)

> 아직 말하는 게 어려워요. (대상자 D)

> 말도 어려워하고 모르는 사람들의 눈빛이 좀. 만약에 제가 친구랑 밖에서 걸을 때 중국말로 대화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원래 소리를 좀 작게 말하는데 친구가 좀 커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마 좀

그렇게 봤어요. 대부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대상자 E)

한국 사람들과 대화 좀 어려워요. (대상자 F)

한국에서 생활할 때 어려운 거는 밖에서 중국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게 좀 그래요. (대상자 G)

혼자 나가면 좀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오래 안 있어서 처음이라 좀 낯설고 밖에 나가면 내가 사는 세상 아닌 것 같아요. 혼자 나가면 좀 불편해서 그래서 혼자 안 나가요. 무슨 일 있으면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나가고 아빠가 시간 없으면 저 안 나가요. 얼마나 급한 일도 안 나가요. (대상자 H)

중국말 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느낌이에요. 그냥 눈치가 그래요. 똑바로 보지 않고 힐끔힐끔 쳐다보고 속닥거리고 또 쳐다보는 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밖에서 중국말 잘 안 해요. (대상자 I)

-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됨

한국 사람들이 안 좋게 쳐다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상자 C)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대상자 E)

사람들이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그냥 잠깐 보고 끝이에요. 그리고 난 다른 사람 안 봐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뭘 봐요. (대상자 H)

저랑 G가 차별이라고 좀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대상자 I)

5) 음악치료를 통한 문화적응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일반 수업의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이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동안 발음에 대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노래할 수 있었다.

- 일상에서 경험한 활동제약이 음악치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느낌

다른 수업보다 편안하고 재미있어요. 한국어 수업은 복잡하고 힘든 느낌인데 음악은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고 간단해요. 음악은 쉽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대상자 B)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체육시간에도 잘 못했는데 기타 칠 때는 좀 더 편안했어요. 기타 칠 때 손가락을 누르는 게 조금 아팠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음악 듣는 것도 계속 들었어요. (대상자 C)

음악시간에는 기타할 때 그냥 손이 조금 아픈 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수업보다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안 힘들어요. 지금 너무 좋아

요. (대상자 H)

-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

> 수업에서 한국말로 한 건 거의 처음인데. 노래들이 다 비슷하게 좋았고 힘든 느낌이 없어서 할 수 있었어요. (대상자 B)

> 다른 수업에서 책을 읽거나 할 때 선생님이 그냥 읽으라고 하면 말이나 발음을 잘 못해서 하기가 힘든데, 노래하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대상자 C)

> B가 잘한 것 같아요. 걔 원래 한국말 잘 안 하고 중국말만 쓰는데, 가사가 한국말을 보고서 부르는 거잖아요. 다른 수업시간에 한국어 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노래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대상자 G)

6) 사회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의 향상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가족, 교사, 또래 지지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꼈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은 가족을 주제로 하는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인식하고 표현하였으며, 교사와 치료사의 칭찬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또한 음악치료 종결 이후 발표를 하면서 받았던 한국 친구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또래 지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 가족의 지지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됨

할머니가 나를 격려해줘요. 중국에 있는 동안 한 살 때부터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외할머니가 보살펴 주셨어요. (대상자 F)

지오디 어머니에게 노래를 할 때 엄마 미안해요 라고 가사를 했어요. 엄마에게 미안한 이유는 나를 키워서. 나를 위해 매일 아침에도 밥 해줘야 하고 많이 미안해서요. (대상자 E)

- 교사의 지지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됨

요즘 제가 학교에서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음악시간에 안 빠지고 잘한다고 선생님(학교 교사)이 칭찬해 주셨어요. (대상자 C)

(치료사가 수고했다고 이야기 하자) 선생님(치료사)이 제일 수고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애들 데리고 음악 재미있게 해주시고 한 번도 안 늦으셔서. (대상자 F)

그동안 음악시간에 했던 것을 선생님들(학교 교사들)이 봐주니까 좋았어요. (대상자 G)

- 또래의 지지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됨

한국 처음 왔을 때 2년은 친한 친구가 여기에는 없고 중국에만 있어서 중국에 계속 가고 싶어 했어요. 이제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

서 친구 많으니까. 저하고 B하고 관계 제일 좋아요 그리고 I하고. (대상자 G)

발표할 때 조금 민망했는데, 그래도 학교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같이 봐주고 칭찬해줘서 잘할 수 있었어요. 기분 좋았어요. (대상자 E)

Ⅴ. 결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경기도 수원 소재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학교의 교실에서 주 2회, 매 회기 50분씩, 총 11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째,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를 사전과 사후에 평가하여 음악치료 활동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사회적 지지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p <.01)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자존감지지는 유의미한 차이(p <.05)를 보이며 사전에 비해 사후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물질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p >.05)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또래지지, 교사지지, 물질적 지지도 사전에 비해 사후 평균이 증가하였고 오히려 가족지지는 평균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대상자들이 겪고 있던 양아버지와의 갈등, 친부모와의 마찰이 가족지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오랜 기간 부모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된 중도입국청소년이 느끼는 심리적·정서적 거리감 또는 새로운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신

현옥 외, 2013; 장명선, 송연숙, 2011)와 일치한다.

둘째,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적응을 사전과 사후에 평가하여 음악치료 활동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문화적응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p <.05)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문화적응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사회적 활동제약, 사회적 소외는 유의미한 차이(p <.05)를 보이며 사전에 비해 사후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개인적 차별, 정서적 문제는 유의미한 차이(p >.05)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하위요인도 사전에 비해 사후 평균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에서 나타나지 않은 개인적 차별과 정서적 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질적 분석에서 보고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며, 악기연주 중심의 음악치료 경험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의사소통 문제가 유의미하게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곽현진, 2012)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이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 회기 실시한 비디오 촬영 및 오디오 녹음과 대상자들의 사전·사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치료를 통한 대상자들의 경험에 대하여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46개의 의미단위가 추출되었고, '그룹음악치료를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가사를 통한 내적표현', '음악치료를 통한 인식의 전환', '그룹경험을 통한 개인적 성장', '음악치료를 통한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의 향상'의 총 6개의 범주 및 13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일상에서의 활동 제약이 음악치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그룹과 함께하는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소속감, 유대감 및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에서 대상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악기인 기타를 연주하고 여러 곡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끈기를 갖게 되었고, 발표의 과정에서 학교 교사들과 한국 친구들에게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문화적응의 하위영역에서 개인적 차별과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통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상자들은 한국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그룹에서 공유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이 경험한 차별과 정서적인 문제를 개인의 성격 또는 태도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에서 실시한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 중재의 필요성을 알리고 기초 자료를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2.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집단 대상의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객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집의 크기를 확대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음악치료 활동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는 주 2회씩 총 11회기의 단기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사전·사후 평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을 알기 어렵다. 이후 연구에서는 추수연구(follow-up)를 통해 기타를 활용한 단기

적인 음악치료의 중재가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의 향상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대상자들이 겪고 있던 가족과의 갈등이 사회적 지지 점수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 기간 중에 대상자들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살게 된 친부모, 한국에 와서 함께 살게 된 새로운 가족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적 지지 점수 중 가족지지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관계 개선이 시급한 문제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이나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1999). **심리척도 핸드북.** 서울: 학지사.

곽현진 (2012).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가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부 (2017). 2016년 교육기본통계. http://www.moe.go.kr로부터 2017월 4월 7일 검색.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근영 (2005).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기악지도 방법 연구: 기타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김명숙 (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김명정 (2011).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17**(2), 55-76.

김미경 (2010). **단기집단미술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김영란 (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43-95.

김영천 (2016). **제 3 판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김유경 (2015). **첼로를 활용한 그룹음악치료가 초등학생 고학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김윤나 (2007).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종국 (2007). **새터민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김지현 (2011). 민요중심의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소에 미치는 효과. **통합치료연구, 3**(2), 21-32.

김진욱 (2016). 국내 음악치료사들의 임상에서 기타(Guitar)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6**(2), 47-65.

남효진 (2007).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정체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 서울경기 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류방란, 오성배, 박균열, 송인영, 박지은 (2011).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무지개청소년센터 (2016). 이주배경청소년이란. http://rainbowyouth.or.kr로부터 2016년 6월 5일 검색.

박미화 (2010). **집단음악치료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박민정 (2014). **국내 다문화가족 관련 음악치료 연구 논문 동향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선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와 또래 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25-51.

박윤숙, 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

문. 연세대학교.

배미현 (2001). **청소년의 음악적 선호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법무부 (2012).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이제 글로벌하게. http://www.moj.go.kr로부터 2016년 6월 7일 검색.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신현옥, 양계민, 서윤정, 김미라 (2013).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심미영, 이둘녀, 박종옥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5**(-), 233-254.

양계민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1), 33-48.

양계민, 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양미진, 고홍월, 김영화, 이동훈 (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87-113.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12), 39-82.

오경석, 양계민, 조성원, 류성환, 조윤희, 정혜실, 이장혁 (2009). **다문화아동청소년 초기적응프로그램 개발방안연구.**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우현정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 피아노 연

주 활동 사례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2), 1-22.

유봉애, 옥경희 (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11-538.

윤선영, 강경선 (2016).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119-138.

윤인진, 채정민 (20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이경주, 신효식 (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이경주, 신효식, 김효심 (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9-39.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이신원 (2015). **치료사의 기타임상즉흥연주를 중심으로 한 방임아동의 음악치료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이영자. (1995).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3**(-), 195-242.

이유신, 김한성 (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63-282.

이종승 (2012).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임연희 (2012). **기타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장명선, 송연숙 (2011).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인숙 (2014). **집단음악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 저소득층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및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장혜경, 김영란 (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3**(-), 1-252.

전경숙 (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정현주 (2011). **인간 행동과 음악.** 서울: 학지사.

조혜영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311-335.

좌동훈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좌동훈 (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요인 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97-126.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최병철 (2006).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최애나 (2012).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19.

최유선 (2002). 정신지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음악의 치료적 접근 방법 : 피아노 교습법을 중심으로. **이화교육논총, 12**(-), 487-50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진입, 향후 5년 내 300만 명 전망. http://www.immigration.go.kr로부터 2016월 11월 2일 검색.

한희선 (200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홍소정 (2015). **우쿨렐레 연주 중심 집단음악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홍순화 (2011). **악기연주중심의 집단음악활동이 대안학교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황혜진 (2014). **전래동요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Arnett, J. (1991). Adolescents and heavy metal music: From the mouths of metalheads. *Youth & Society, 23*(1), 76-98.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Bruscia, K. E. (2003). Defining music therapy. 최병철 (역).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8).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Kim, S. A. (2013). Re-discovering voice: Korean immigrant women in

group music therapy. *The Arts in Psychotherapy, 40*(4), 428-435.

Knoll, C. (1998). Music Therapy in Action Anecdotes and Observations from the Field. *Music Therapy Perspectives, 16*(1), 9-12.

Krout, R. E. (2007). The attractive of the guitar as an instrument of motivation, preference, and choice for use with clients in music therapy: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Arts in Psychoterapy, 34(1)*, 36-52.

Madsen, C. K., Cotter, V., & Madsen Jr, C. H. (1968). A behavioral approach to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5*(3), 69-71.

Radocy, R. E., & Boyle, J. D. (2005).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최병철, 방금주 (역). **음악 심리학.**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7).

Sam, D. L., & Berry, J. W. (2010).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 472-481.

Soshensky, R. (2005). Developing a guitar-based approach in Nordoff-Robbins music therapy. *Music Therapy Perspectives, 23*(2), 111-117.

Steele, A. L. (1977). The application of behavioral research techniques to community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14*(3), 102-115.

Tervo, J. (2001). Music therapy for adolescents.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1), 79-91.

Wheeler, B. L. (2004). Music therapy research. 정현주 (역). **음악치료 연구.**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5).

Wigram, T. (2000). A method of music therapy assessment for the

diagnosis of autism and communication disorders in children. *Music Therapy Perspectives, 18*(1), 13-22.

Abstract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Using Guitar on Social-Support and Cultural-Adaptation for Immigrant Adolescents.

Eum, Chong-myeong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using guitar on the social-support and cultural-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nine immigrant adolescents attending an alternative school in Suwon, Gyeonggi-do. The music therapy program was conducted for 50 minute sessions, twice a week, a total of 11 sessions from August 30 to October 7, 2016.

To study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using guitar, the social-support index and cultural-adaptation index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nd their mean difference was analyzed using the Wilcoxon signed ranks test. The quantit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scores for the subjects' social-support ($p < .01$) and cultural-adaptation ($p < .05$) had statistically relevant changes, with the subjects testing higher on average

after the therapy.

To study the subjects' experiences during the music therapy using guitar, data including video and audio recordings of each therapy session as well as individual interview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ere collect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bjects experienced 'positive emotions through group music therapy', 'expression of self through lyrics', 'change in understanding through music therapy' and 'improved recognition of available socials support resources' through the music therapy using guitar.

The study showed that music therapy using guitar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support and cultural-adaptation for immigrant adolescents.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interventional implications of music therapy using guitar.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부록 2> 일반적 사항

<부록 3> 사회적 지지 척도

<부록 4> 사회문화 적응 척도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음총명입니다.
본 연구는 석사학위 학위과정의 일환으로, 연구의 목적은 기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연구는 3회의 인터뷰 및 설문지 작성과 11회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2016년 8월 30일 부터 2016년 10월 7일 까지 주 2회, 매회기 50분씩, 총 11회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비디오 녹화와 오디오 녹음이 진행될 수 있으며, 녹화/녹음된 자료와 설문지의 내용은 슈퍼비전 및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종료 후 모두 삭제됩니다.

연구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석사학위과정
지도교수 : 백혜선
연구자 : 음총명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연구자 이름: 음총명 서명: _____
참여자 이름: _____ 서명: _____

<부록 2> 일반적 사항

일반적 사항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나이는 몇 살 입니까?
( )세

3. 현재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재학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재학 ⑤ 고등학교 졸업

4. 현재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① 한국 ② 중국 ③ 그 외

5.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혼자 생활한 기간은 얼마동안 입니까?
대략 ( )년 동안

6. 한국에 입국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 ( )월

7. 학교 입학일은 언제입니까?
( )년 ( )월

8.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 사항에 전부 V표 해주세요)
아빠□, 엄마□, 양부모□, 형제□, 자매□, 혼자□, 그 외 가족□_____

9. 보호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빠: , 엄마:)

10.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그 외( )

11.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못 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 한다.

12. 자신이 느끼는 경제적 수준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3. 평소에 음악을 어느 정도 좋아합니까?
① 매우 싫어한다. ② 싫어한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아한다. ⑤ 매우 좋아한다.

14.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중복 가능)
클래식□, POP□, K-POP□, C-POP□, J-POP□, CCM□, 랩/힙합□,
일렉트로니카□, R&B□, Rock□, 재즈□, 영화음악□, 기타□_____

15.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있습니까?
① 있다. (누구입니까?) ② 없다.

16. 좋아하는 한국 노래가 있습니까?
① 있다. (무엇입니까?) ② 없다.

17. 음악을 배운 경험은 어떠합니까?
① 경험이 없다. ② 학교에서 배웠다. ③ 레슨 경험이 있다. ④ 스스로 학습했다.

18.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습니까?
① 있다. (무엇입니까?) ② 없다.

19.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습니까?
① 있다. (무엇입니까?) ② 없다.

20. 여가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 )

21.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한국친구 ( )명, 한국친구 외 ( )명

22.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선생님 ⑤ 그 외( )

23.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 학교 적응 ② 문화 적응 ③ 언어 적응
④ 친구 관계 ⑤ 경제적 적응 ⑥ 그 외( )

24. 음악치료 또는 다른 심리치료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무엇입니까?) ② 없다.

<부록 3>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다음 문항들은 가족, 친구, 학교, 그 외 모든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까지 v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내 용	No	Yes
1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1---2---3---4---5	
2	내 생각이나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준다.	1---2---3---4---5	
3	나는 내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1---2---3---4---5	
4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1---2---3---4---5	
5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준다.	1---2---3---4---5	
6	우리 가족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준다.	1---2---3---4---5	
7	우리 가족은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다.	1---2---3---4---5	
8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1---2---3---4---5	
9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1---2---3---4---5	
10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 준다.	1---2---3---4---5	
11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깝다.	1---2---3---4---5	
12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1---2---3---4---5	
13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1---2---3---4---5	
14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은 잘 도와주신다.	1---2---3---4---5	
15	우리 선생님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신다.	1---2---3---4---5	
16	기분이 좋을 때 그 기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2---3---4---5	
17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다.	1---2---3---4---5	
18	속상할 때 주위사람이 위로해 준다.	1---2---3---4---5	
19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	1---2---3---4---5	
20	슬플 때 즐거워지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다.	1---2---3---4---5	
21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1---2---3---4---5	
22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1---2---3---4---5	
23	특별한 숙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	1---2---3---4---5	
24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다.	1---2---3---4---5	
25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	1---2---3---4---5	
2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주위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	1---2---3---4---5	
27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들어준다.	1---2---3---4---5	
28	주위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준다.	1---2---3---4---5	
29	주위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1---2---3---4---5	
30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2---3---4---5	
31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거나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2---3---4---5	
32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2---3---4---5	

<부록 4> 사회문화 적응 척도

[사회문화 적응 척도]

다음 문항들은 한국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까지 v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내 용	No				Yes
1 나는 사회적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릴 때가 많다.	1	2	3	4	5
3 한국에서 사용되는 낯선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1	2	3	4	5
4 한국의 문화에 적응이 안된다.	1	2	3	4	5
5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한국사람)에게서 차별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7 한국 사람들은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8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1	2	3	4	5
9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온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10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1	2	3	4	5
11 나는 한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한국사회의 법·제도에 잘 적응이 안된다.	1	2	3	4	5